

교회협 화통 제2022-4호
수신 조선그리스도교련맹 강명철 위원장
참조
제목 부활절 남북(북남) 공동기도문 협의의 건

2023. 3. 15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귀 연맹에 함께하시를 기원합니다.

본회는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며 남북(북남)공동기도문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회는 귀 연맹과 협의하여 세계교회와 공동기도문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본회가 작성한 부활절 기도문을 검토하셔서 4월 2일(월)까지 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첨부해 드린 공동기도문을 합의된 내용으로 배포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의 중보가 절실합니다. 위원장님과 귀 연맹 성원 모두의 건강과 인민들의 생명의 안전을 기원하며,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첨부: 2023년 부활절 남북(북남) 공동기도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2023년 부활절 남북(북남) 공동기도문 (남측 초안)

한반도에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된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평화와 안녕이 한반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성령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같은 한반도의 상황을 평화와 화해의 영으로 한 올, 두 올 풀어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화해의 영으로 한반도에 임하셔서,
남북이 적대가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연일 비난과 비방으로 서로를 겨냥해 힐난하고, 오해와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다짐했던 평화의 약속들은 온데간데없이, 전쟁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각종 첨단 무기들의 실험장이 되었고,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화약고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남북이 나뉘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채, 전쟁준비에만 몰두합니다. 70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딛고 서있는 한반도에 적대가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치의 영으로 오셔서,
다시 한 번 남북이 신뢰하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와 화해를 말하면서, 오해와 적대감만 쌓였습니다. 공동과 상생을 말하면서 갈등과 대결을 조장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화해, 그리고 일치를 입으로만 고백만 했을 뿐, 그 고백을 몸으로 살아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지금이라도 남북이 서로 신뢰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서로의 신뢰구축으로 한반도가 화평의 통로로, 세계평화의 교두보로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남북, 한반도가 하나님의 일치의 영으로 다시금 신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영으로 함께하셔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38선을 중심으로 강대강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북, 특별히 남과 북의 교회가 단단하게 굳어진 남북의 마음을, 사랑으로 무디게 해주십시오. 미움과 분열이 있는 마음에, 화해와 분열의 마음이 자리하게 해주십시오. 불신과 대립의 입술에 대화의 입술을 허락해주십시오. 폭력과 파괴의 전장에 상생과 생명의 터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침표에서, 평화의 선포라는 마침표가 찍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차가운 마음에, 서슬퍼런 전쟁의 위기에, 통일의 염원이
간절한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과 북을 화해, 평화 그리고 일치로 이끄시길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3년 4월 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선그리스도교련맹